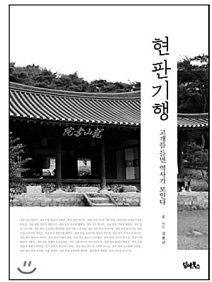


한 글자에도 역사와 문화가 서려있다

현판기행

글·사진 김봉규 | 담앤북스 펴냄 | 1만6천원



장면 하나

사찰의 전각이나 일주문에는 유독 조선의 왕이 쓴 글씨(御筆)가 눈에 띈다. (불국사 대웅전, 마곡사 영산전, 선암사 대북전 등) 유교를 숭상하던 서원에서도 흔하지 않은 풍경이다. 왕이나 왕의 친척의 명복을 빌던 원당이 사찰 안에 세워졌던 경우 외에도 이런 일은 흔했다. 송유역불 시대 사찰은 심심하면 유생들이 가서 행패를 부리던 곳이다. 이런 폐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 사찰은 앞다투어 왕이나 왕의 친척(대원군 등)이 쓴 글씨를 내걸었다.

장면 둘

2008년 2월 10일 승례문에 화재가 발생한다. 불은 거침이 없었고 금세 모든 걸 삼켜버릴 기세였다. 모두 손을 놓고 있을 즈음 다급한 명령이 떨어진다. "현판을 사수하라!" 추사 김정희도 서울에 들르면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다는 승례문 현판은 누가 보아도 명필이었다. 소방대원 두 명이 다급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10여 명의 몸집 끝에 현판을 땅으로 떨어뜨렸다. 현판이 떨어지고 10분쯤 지나 승례문은 완전 전소되었다. 현판도 사람의 목숨도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여하튼 그 덕분에 승례문의 옛 현판만은 지금도 복원된 승례문 위에 걸려 있다.

이렇듯 이 땅에 남아 있는 '현판'에는 많은 사연이 담겨 있고, 남아 있다. 혹자는 이를 '역사'라 하고 어떤 이는 '문화'라 부른다. 저자는 이런 역사의 현장, 문화의 현장을 하나하나 발로 답사하고 글로 그리고 사진으로 남겼다. 현판 글씨는 다른 글씨와 다르게 대단한 공력과 실력이 요구된다. 그런 만큼 아무나 쓸 수 없었다.

중국 삼국 시대의 대표적 서예가로 위탄(179~253)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 글씨에 뛰어났는데 특히 현판 글씨가 백미였다고 한다. 위탄이 제서를 쓴 일과 관련해 유명한 일화가 전한다.

위나라 명제가 높은 누각을 짓고 이름은 '능운대(凌雲臺)'라고 정한 뒤, 글씨를 쓰지 않은 현판을 걸어 놓았다. 그리고는 위탄에게 커다란 바구니에 들어가게 한 뒤 도르래를 이용해 지상에서 25자(약 7.5미터)나 되는 허공에 매달아 놓고 거기서 글씨를 쓰게 했다.

위탄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큰 공포를 느끼며 혼신의 힘을 다해 글씨를 써야 했다. 그런데 위탄이 글씨를 쓰는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 그의 머리카락이 삼시간에 하얗게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위탄이 얼마나 엄청난 기력을 쏟았는지를 말해 주는 일이라 하겠다. 위탄은 이 일이 있을 후 다시는 현판 글씨를 쓰지 않았다 한다. 그리고 후에 후손이 지켜야 할 가문의 법도를 적은 향목을 남기면서, 자신들은 절대 현판 글씨를 배우지 못하도록 한 향목을 넣었다 한다.

물론 일부는 후대 사람들이 가감했거나 현판 글씨를 쓰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공력과 실력을 요구하는지 알려준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비해 현판은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글판역과 주련이 걸린 봉선사 큰법당. 최초의 대웅전 한글판역이다.

현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적 없어 현판글씨 선택받은 이만 가능 사원, 사찰 등 35곳 현판 역사 수록

현판이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단 하나도 없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추사 글씨인 봉선사 '판전(서울시유형문화재 제84호)' 현판과 명종 글씨인 영주 '소수서원(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0호)' 현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판 글씨는 특히 금석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大)자 글씨의 특별한 서체와 서풍을 다양하게 살필 수 있다. 그런데도 그 가치는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선조들은 건물에 화재나 풍수에 등으로 소실되거나 파괴될 때도 현판만이라도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굴렀다. 밀양에 영호루 현판이 대표적이다. 특히 영호루는 건물이 소실된 이후에도 현판 하나가 있었기에

다시 복원되는 역사를 갖고 있기도 했다.

그동안 궁궐의 현판이나 사찰의 주련 등에 대해 다른 책은 있었지만 궁궐, 고택, 사원, 사찰, 정자, 누각 등 우리의 옛 현판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교양서로는 이 책이 처음이지 싶다. 비록 '기행'이라는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이 책은 정설과 야사를 포함한 '역사' 그리고 당대 학문의 흐름과 서체의 발달 등 '문화'에 대해 풍부하게 다룬다.

저자는 이렇게 옛 현판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말한다. 글씨 자체가 가진 가치뿐 아니라 그 문구가 담고 있는 의미가 주는 가르침, 그 현판에 담긴 일화, 글씨를 쓴 서예가의 예술혼 등 유무형의 값진 유산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특히 부록에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서, 예서, 행서 등 서체 종류와 변천사도 소개했다. 모두 35곳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겼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발전과정을 거쳤을까?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 1만4천원



지난 2004년 출간돼 불교의 역사를 알기 쉽게 소개한 입문서로 꾸준한 호응을 얻은 <하룻밤에 읽는 불교>가 개정판으로 재탄생했다. 이번 책에서는 기존의 흑백 지면을 듀오톤 컬러로 바꾸어 세련미를 더했고, 복잡하면서도 헛갈리기 쉬운 지식을 한눈에 명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00여 컷의 지도와 도표, 사진의 정보 디자인을 보강했다. 내용 면에서 꼼꼼한 보안을 거쳤고 한글세대에 부담을 안긴 한자어를 많이 풀어내는 등 읽는 이들의 입장을 많이 배려했다. 특징이

명상, 참선, 힐링 등으로 현대인의 삶에 깊숙이 자리한 불교는 본래 우리 문화 면면에 녹아있는, 한민족에게 가장 친숙한 종교이다. 우리나라 유적의 약 60~70퍼센트가 불교와 관련된 정도로 우리 문화 곳곳에는 불교의 자취가 스며있다. 그뿐만 아니라 불교는 대다수 아시아 국가가 받아들여 각자 나름대로 발전시켰을 만큼 동양 정신문명의 기둥이 되는 사상이자 철학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는 물론 동양 문명의 원류를 이해한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불교를 이해하기란 녹록지 않다. 낯선 언어와 어려운 한자어로 된 불교 용어를 비롯해 형이상학적이거나 모호한 개념, 오랜 세월 동안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변화해온 모습 등은 불교를 난해하고 복잡한 종교로 보이게 한다.

이 책은 현대인과 불교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가급적 평이한 우리말 표현으로 불교의 역사 및 사상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정리하기 어렵거나 헛갈릴 소지가 있는 불교 지식은 지도와 도표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어 핵심을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은 불교가 탄생한 인도의 불교 역사부터 시작해 중국, 한국, 일본, 티베트의 불교 역사를 짚어보고, 초기불교사상부터 불교의 대표적 사상인 중관사상, 유식사상, 화엄사상, 천태사상, 선사상, 정토사상을 차례로 살핀다. 제 1장에서는 불교의 탄생과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비롯해 인도에서 불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짚어본다.

제 2장에서는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경로를 들여다보고 중국의 토착 종교인 도교, 유교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

장했는지를 돌아본다. 또한 제 6장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개인의 삶에서 시작해 초기불교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다룬다. 제 9장과 제10장에서는 화엄사상과 천태사상을 조명하며, 마지막 제 12장에서는 극락정토에의 왕생을 요체로 하는 정토사상을 살핀다.

또한 각 꼭지의 말미에는 불교사 속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담은 '역사 메모'를 삽입해 풍부한 이해를 돕고 있는 것도 이 책이 지닌 장점이다.

이 책의 저자인 소운 스님은 한국 스님 중 처음으로 미국 내 불교학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하버드대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비구니 학승이다. 그는 처음 불교에 귀의했을 때 불교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 당황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불교라는 거대한 산에 오르는 여러 갈래의 길을 대중에게 한눈에 보여주고자 자신이 공부했던 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한다.

저자는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독자들이라면 이 책을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보다는 자신이 필요한 부분이나 흥미로운 부분부

하버드출신 소운 스님 쓴 불교역사 100여컷 지도와 도표, 사진 보강 불교속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삽입

터 읽을 것을 권한다. 처음 산에 오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짐을 지면 얼마 못가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어느 정도 불교를 공부한 독자들이라면 한 번쯤 책을 통독해보라고 권한다. 불교라는 숲의 생김생김을 전체적으로 통찰하는데 이 책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소운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후 곧바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동경에서 중국불교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동대학원서 박사과정을 거쳐 미국 하버드대 인도·티베트불교 박사 과정에 입학했다. 하버드대는 오래전부터 티베트, 일본, 중국 등의 불교를 활발히 연구해온 미국 내 불교학의 본산이었다. 8년간의 하버드 생활 끝에 우리나라 승려 중 최초로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13년에 걸친 유학 생활을 마치고 2002년 귀국했다. 그리고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 불교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 당황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대중들에게 불교의 세계를 차근차근 알려주어야 이 책에 쓰게 되었다. 현재 동명대 교수로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조사선과 간화선의 요지 밝힌 최초 강설서

선요, 선사의 체험으로 풀어내다 상·하

설우 스님 강설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6천원



"선방에서 선이 살아 있고, 일상 가정 서밭해먹고 청소하고 가족과 대화하는 것은 선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선이고, 거기서 살아 있는 선을 해야 하는데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게 심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선 공부는 내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현실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선을 잘하기 위해서 가정이 희생돼야 한다는 것은 전도된 것입니다."

<선요>는 참선수행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실참실오(實參實悟)'하는 조사선과 간화선의 요체를 설해 놓은 것으로, 과거 전통강원의 이력기록 중 사지의 한 과목이기도 하다.

이 책 <선요, 선사의 체험으로 풀어내다>에는 개당보설(開堂普說)을 시작으로 양산 화상에게 답한 편지 등 모두 29편의 법문이 수록돼 있는데 이는 고봉어록 상권의 내용 72편 가운데에서 발췌한 것이다.

예로부터 <선요>의 대지(大旨)를 분대지 투현관(奮大志 透玄關)이라 말해 왔다. 이

는 큰 뜻을 세워 분발해 조사현관 곧 화두를 타파하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선요>서문의 첫 문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參禪은 雖以不立文字하며 不假修證으로 爲宗이나 然이나 既可參則必有要理' 즉 '참선(參禪)은 문자를 세우지 않으며 닦아 증득함을 빌리지 않음을 종지로 삼는다. 그러나 이미 참구한다면 반드시 요점이 있다.'라는 의미다.

조계종 출판사의 이번 책은 지난 6월에 발간한 도서 <무비 스님의 증도가 강의>에 이은 조사어록의 발간이다. 조사어록은 수행가공을 중시하는 조계종 종지에 부합하는 소의 경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발간의 미가 크다.

김주일 기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마이크에서 소리를 직접 조절하는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구즈넥마이크를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괄 설치비: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65,000원 YD-675: 115,000원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를 직접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송금계좌: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